

투데이 칼럼

김정은과 북한 청년 세대

북한이 '내부 결속과 단속'에 열중하고 있다. 열병식 등 굵직한 행사들은 모두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청년 사랑' 이미지 연출이 돋보인다. 열병식에 동원됐던 청년들에게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진을 함께 찍자고 먼저 제안을 한다.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청년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 감증이 여전하다.

바로 당근과 채찍의 북한 청년정책이다. 크고 화려했던 조선인민혁명군장전 90주년 열병식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것이 있었다.

광장 한복판을 빼곡하게 채운 '배경대'는 소위 '바다대열'이라고 불리는 동원 군중들이었다. '결사옹위', '부국강병' 등의 글자를 만드는 것도 모두 이들 몫이다. 그리고 이 '바다대열'엔 대부분 청년들이 동원된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과 열병식 참가 청년들의 기념사진 촬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금까지 '바다대열' 참가자들과 최고지도자의 기념 촬영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노동신문 역시 이 소식을 1면에 실

고 역사적 사진이라 전했다. 실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와 찍은 사진은 '1호 사진'으로 불리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영화에도 최고지도자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어떤 의미인지 잘 표현돼 있다.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노동당 입당이나 진급 등의 특혜를 받는다. 북한 당국은 이를 충성심 유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 참가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한 것은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이라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해 8차 당 대회를 통해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전국의 경제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에는 물질적 보상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청년들의 충성심이 부각되고 있다.

대규모로 동원되는 청년들에게 미

래 보장이라는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 전략과도 비슷한 모양새다. 마식령 스키장,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등 여러 건설, 경제 분야에 청년들을 동원했다.

당시 북한은 20여 년 만에 '전국 청년 미풍선구자대회'까지 부활시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된 청년들을 칭찬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은 돌격대원 한 명은 마침내 노력 영웅이 됐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 청년들까지 챙기는 것은 장마당 경제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징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러한 청년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남 비난이 고조됐던 2020년 6월 대규모 군중집회와 시위를 청년들이 주도했다. 지난해엔 청년동맹 10차 대회를 열

고,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의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8년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변화와 개방을 원했던 청년 세대들의 기대와 달리 10년째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과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단속,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세대가 많이 접하는 '한류'는 반사회주의라며 더욱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2020년 12월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채택해 한류 등 외부 문화를 유포시킬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북한 청년들이 당국의 바람대로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16년 군인 신분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어느 청년은 탈북을 결심한 이유로 한류와 전방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꼽았다. 또 다른 청년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 1호(김정은) 사진 촬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동경은 별개라고 말한다.

북한 청년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변화에 민감하고 외부 문화에 익숙하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근과 채찍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복규
논설위원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만연

의약품 리베이트(rebate)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rebate)란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상품 대금으로 지불된 액수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일이다.

전북지역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5년간 리베이트를 벌인 어느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 중심의 13개 병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했다.

본사에서 관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전달하면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했다.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씩꿀'(선지원 리베이트), '플러툼'

(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했다.

정확한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 병원의 처방 근거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 근거 자료인 EDI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는 디지털화 된 '처방근거자료'를 의미한다.

후지원 리베이트는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는 EDI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이런 부당 고객 유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해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야 바란다.

신생아 특례대출 문제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2년생 유아 부모를 울리고 있다. A씨(38)는 연 3%대였던 전세대출 금리가 5%까지 치솟으면서 전세 계약 만료 때는 특례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녀가 2022년생이어서 불가능하게 됐다. B씨(37)도 자녀가 2022년생이어서 같은 상황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자(대한 대출에게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대출 용도로는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낮은 금리에 출시 초기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사이트인 '주택도시금융 기금e든든'의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상품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주가 대상이다.

그런데 시행 첫해인 올해는 2022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신생아여도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2022년 영아 수당을 확대했을 때도 만 0~1세 연령의 아동이 출생 시점의 작은 차이로 장기간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년 내 출산'이라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 대상 기준이 문제다. 이 상품은 KB국민, 신한, 우리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주택도시금융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출생 연도부터 현실성 있게 재고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수백 총리 "요르단의 가자지구 지원 노력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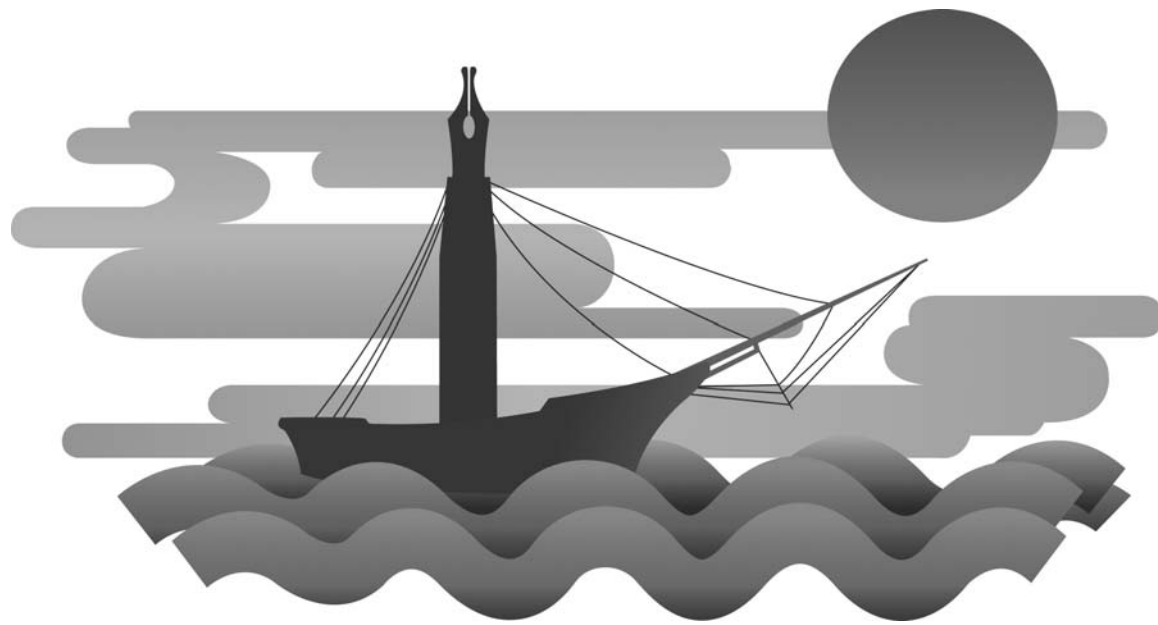


리시 수백(오른쪽) 영국 총리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런던 디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있다. 수백 총리는 가자지구에 대한 요르단의 육로와 항공을 통한 인도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뺏길 수 없어"



지난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통 '공 씨름' 경기가 열려 참가자들이 공을 잡기 위해 다투고 있다. 무도 정신을 고취하는 이 경기 참가자들은 상대편 도랑에 무게 25kg의 나무 공을 넣기 위해 서로 뺏고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인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